#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삼청동의 재조명

## Revisiting Samchung-dong as a cultural consumption space

김학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신경숙의 소설 '바이올렛'에서 여주인공이 세 살던 삼청동[1]은 줄곧 시간이 멈춘 듯 좀처럼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동네로 묘사되었으며 실제로 삼청동을 포함한 북촌 일대는 거리에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서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낡은 한옥이 밀집된 주거보존지구이다. 중·장년층에게 '삼청각', '수제비집', '총리공관', '추억의 데이트 코스' 등으로 인지되었던 삼청동은 최근에 젊은 세대와 여피 족들에게는 갤러리, 패션숍, 와인바, 퓨전 레스토랑이 밀집된 '강북의 청담동[2]'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청동은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상징적 공간들이 중첩된 독특한 문화 소비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특정 장소나 공간에 부여된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가, 그리고 상이한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경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문화적 소비 개념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북의 새로운 문화 소비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삼청동을 사례 지역으로 하여 한 지역이 문화 소비 공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이 지역의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 갤러리의 입지 변동 주기 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청동에 거주하는 주민,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경영자, 패션·액세서리 샵 운영자, 갤러리 및 예술 관련 종사자, 삼청동을 찾은 방문자를 면담하였으며, 삼청동 관련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삼청동은 조선의 고관들과 팔도 출신 양반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일제시대를 거쳐 1960년대까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였으며, 자부심 강한 사회 지배층의 한옥마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지역의 전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한옥지역이 갖는 쾌적한 분위기와 도심 접근성, 계층의 동질성 등 가치요인이 퇴색하기 시작하였고 이곳에 거주하던 부유층들은 마포, 여의도, 강남 신 개발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한편 노후한 삼청동 일대가 한옥 밀집 지구로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서울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개발되면서 겪게 된

1) 삼청동은 종로구 가회동과 함께 북촌 한옥밀집 지역에 속하며 7개 법정동인 삼청동, 팔판동, 화동, 소격동, 안국동, 송현동, 사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청담동은 넓고 세련된 공간에서 인지도 높은 해외 명품, 고가의 최고급 음식이나 퓨전 음식, 국제 감각의 유명 브랜드가 넘쳐나는 고급 소비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비해 삼청동은 '주인이 직접 만든' 홈메이드 음식이나 전통을 강조하는 음식, 독특한 인테리어를 갖춘 레스토랑이 주를 이루며 청담동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패션 숍도 초미니 가게일지라도 디자이너의 독창성을 반영하는 다품종 소량 제품, 수공예 니트, 천연섬유제품, 빈티지 패션 등 개성미를 우선시 한다.

자기 상실의 위기감(송도영, 2005)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는 1999년 이후 본격적인 '북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낡은 건물들은 철거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가옥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간인들이 한옥을 구입하여 보수할 때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 외양을 유지할 경우 보수비용을 지원하였다. 한옥보존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성사되면서 주민들은 불편하고 낙후된 거주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돈이 되는' 주거 및 문화 공간으로서 삼청동을 재인식하게 된다. 서울시의 한옥 보존 정책과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 삼청동에 이주한 기존 서민 계층을 대신할 중상류 계층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김근영, 2003). 특히,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한옥의 장점에 대한 재발견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는 한옥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중상류층 사람들로 하여금 전면 개보수를 거쳐 삼청동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삼청동의 변화를 미국과 영국의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개념화(Dant, 1989)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삼청동의 한옥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주거형태라기보다는 제한된 지역에서 특수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공급이 극히 제한된 주거 및 소비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순한 도심 재개발 차원을 넘어 문화, 경제, 계급적 상징을 포함하는 생활 양식(lifestyle)[3] 그 자체로 해석한다면(Zukin, 1998) 즉, 단순한 주택의 고급화 뿐 아니라 스포츠 · 레저 · 쇼핑 시설,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 패션 샵이 동시에 입지함으로써 문화 자본과 생활 양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그 의미는 확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청동 수제비'로 상징되는 대중적 소비문화, 하류층에 속하는 주민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고급 외국 레스토랑과 갤러리, 디자이너 상표가 부착된 부티크, 여피족[4]의 삼청동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갤러리 입지 순환 주기와 관련하여 해석해 보는 것도 최근 삼청동 지역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5년 3월 북촌 입구에 자리 잡은 갤러리 현대를 비롯하여 국제 갤러리와 같은 대형화랑 외에 대안 공간 성격의 신설 전시장이나 다른 지역의 화랑들도 삼청동 인근 지역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어 서울의 갤러리 지도가 급격히 변화[5]하고 있다. "미술이야 말로 삼청동의 존재 이유"라고 소

---

3) 현대사회의 소비는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기능적 측면과 사용 가치적 측면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경관과 장소에 상징과 의미를 주입하며, 공간에 진열된 상품만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집단(또는 개인)과 특정 지역의 정체성이 연결될 수 있다.

4) 현재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는 대기업주도로 '광화문시대', '용비어천가', '경희궁의 아침' 등 고급 주거형태로서 주상복합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일종의 도심 재활성화, 고급주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개발업자들은 어린이가 없는 세대와 독신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평수가 혼합된, 젊은 중산층, 고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거 공간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5) 2005년만 해도 갤러리 베아르떼, 이화익갤러리, 김현주갤러리, 북촌 미술관 등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라틴미술전문의 갤러리 베아르떼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복궁 건너편으로, 이화익 갤러리는 인사동에서 북촌으로 이전하였다. 현재로 경복궁에서 삼청공원으로 연결되는 삼청동 일대에는 주민 4500여명에 갤러리 30여개가 밀집하여 있다. 이전안이 빌표된 국군기무사 자리에 국립현대 미술관 전시장이 들어선다면, 삼청동 일대가 실질적 미술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미술 전문가들도 있다.

개하는 미국 유명 여행 · 레저 잡지의 특집기사[6]에서 볼 수 있듯이 갤러리가 밀집하고 독특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소비 공간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대중의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주말이면 연인과 친구, 가족끼리 카메라는 들고 삼청동 일대 미술관을 순례하고 삼청동의 분위기를 즐기려는 방문객과 차량으로 북적인다.

그렇다면 화랑가가 발달한 전통적인 문화소비 중심지인 인사동, 청담동에 이어 삼청동이 새로운 갤러리 밀집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뉴욕의 예술가 거주지역의 변천 과정은 갤러리 입지 변동 주기[7]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뉴욕은 예술가들에게는 꿈의 장소이지만 이들에게 뉴욕 중심부의 살인적으로 높은 집세는 큰 부담이 된다. 1990년대 중반이후 뉴욕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쇠락한 공장지대였던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고급 부티크와 프렌치 베이커리, 각종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여 곧 맨해튼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높은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호 역시 예술가촌이었다가 갤러리 촌으로 변했고, 지금은 갤러리마저 거의 다 떠나 맨해튼 다운타운 쇼핑의 중심지가 되었다(박상미, 2004). 실제로 삼청동에는 문화 · 예술계 종사자들이 북촌 일대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며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같은 문화 소비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 삼청동 지역에서 거주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입지 주기론은 국내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가인 인사동에 최근 몇 년간 식당, 찻집, 아트 숍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영세한 갤러리나 패션숍 등이 삼청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또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40여개의 갤러리가 밀집하였으나 지금은 명품 매장이나 성형외과, 웨딩샵으로 대체된 청담동의 사례 역시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 한다. 압구정동과 대치동 사이에 위치한 청담동은 교통도 불편하고 압구정동에 비해 임대료도 높지 않아 자연스럽게 청담 사거리를 중심으로 화랑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특히 청담역 개통 이후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현재는 건물 소유주가 운영하는 10여 개의 화랑만 살아남게 되었고, 갤러리 밀집 지역으로서의 청담동의 명성은 약화되었다.

---

6) 미국 여행전문잡지 '트래블+레저' (Travel+Leisure) '는 2005년 12월 특집호에서 삼청동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소비 공간으로 소개하였는데, '근사한 이웃 동네, 아시아' 편에서 '예술가와 컬렉터가 속속 모여드는 삼청동엔 갤러리와 현대식 카페, 무너질 듯한 국수집이 공존하고 녹차 라떼 등을 홀짝거리며 공책에 글을 끄적이거나 노트북을 두드리는 작가, 사색에 잠긴 예술가, 한국인과 일본 관광객을 볼 수 있다 '고 쓰고 있다.

7) 저렴한 집세는 젊고 창의성이 풍부한 예술가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낡은 창고와 작은 공장, 다용도의 낡은 가옥 등은 예술가들에게 활기찬 실험과 인큐베이션 지대(incubation zone)를 제공한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 문화공간의 개척자인 예술가들은 높은 지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대료가 싸고 생활이 불편한 새로운 지구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